예불 독경 법문 아무때나 '접속'

불교학 사전에서는 '신행'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사이버 세상에서도 불교관련 사이트들이 속속 선보이면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알리고 실제 수행의 방법까지도 전해주고 있다. 정보의 바다 사이버 세상, 클릭 하나로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교리·수행법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요즘, 사이버 상에서의 신행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네티즌 사로잡는 사이버 신행

사이트 자료 올려 '포교사 역' 척척

동호회 활동 통해 신행결속력 강화

불교교양강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윤씨는 "사이버 신행이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를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린다. 즉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교에 관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것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신행은 오프라인에서의 신행생활과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신행활동과 사이버 신행은 그 행동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이버 신행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새벽 3시 자다 일어나서도 사이버 법당에 들어가 반야심경을 봉독할 수 있고 위빠사나 자료실에 가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도 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수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를 다운받아 포교사가 된 듯 이곳 저곳 다른 사이트들에 자료를 올려놓을 수도 있다.

사이버 신행에 단점이 있다면 지속력과 결속력이 약하다는 것. 자신의 확고한 수행에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신행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

이렇듯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바람직한 신행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선 자신이 찾은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잘못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올바른 정보인지 확인하고 검증하고 난 후에 해야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스님들만이 법사, 포교사가 아니라 일반 불자들이 바로 법사요 포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는 스님들이 불법홍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사이버 공간에서는 평신도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윤 씨는 "사이버 신행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불자들이 사이버상에서 현실로 만들어 가야하는 과제"라며 "사이버 상에서 도량을 여는 것은 사이버 신행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이들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달할 불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사이버 공간도 신행현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행풍토는 갈수록 보편화 될 전망이다. 사진 위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세워진 사찰이고 아래는 법당이다.

분야별 우수 불교 사이트

■초심자를 위한 인터넷대학

이제 막 불교에 입문한 초심자들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인터넷 대학을 방문하면 상식으로 알아야 할 예절에서부터 부처님 생애, 기본교리, 경전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묻고 답하기 코너를 운영하기도 한다.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www.buruna.org)
강태용의 불교아카데미(hades.interpia98.net/~bh9475)
이재윤과 함께하는 불교교양강좌(studybud.buddhism.org)
인터넷 불교교육원(compassion.buddhism.org)
인터넷불교대학(www.buddhistweb.com)
용화세계(user.chollian.net/~s1saint)

■경전

아무래도 책으로 보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제 경전공부도 인터넷으로 해결하자. 흔히 접하는 경전뿐 아니라 웬만한 경전들은 모두 제공한다. 경전의 유래, 내용 등 소개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나 원문을 올려놓기도 한다. 자료를 요청하면 올려주는 곳도 있다.

경전의 이해(dharma.dharmanet.net/sutras)
불교경전 진언 도우미(user.chollian.net/~hgs9292)
지장보살본원경(members.tripod.co.kr/domyung)
불교경전 자료 전문 검색엔진(mirrk.new21.org)
정운길의 옴마니 반메홈(myhome.bbl.co.kr/ohm)
고려대장경 웹서비스(211.46.71.249/condsearch)
불교학당(mirrk.buddhism.org)

■예술

우리 나라 전통문화의 바탕을 이루는 불교예술을 널리 알리는데 인터넷만큼 유용한 수단도 없다. 산사를 담은 사진에서 문학작품, 등, 전통문양, 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불교예술을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사진작가의 입불지견(한국의 사찰)(photo.new21.net)
법정스님의 칼럼 모음(bjcolumn.webjump.com)
달달 무슨달(hannara.com.ne.kr)
전통등 연구회(www.lanterns.co.kr)
한국전통문양(net-in.co.kr/A4)
능화스님의 불교무용(www.buddhistdancing.or.kr)

■미술

인터넷은 전시회나 박물관을 찾아다니는 수고까지 덜어준다. 요즘은 사이버공간에도 함께 작품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탱화나 나한도 등 불화를 종류별로 감상하며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준다. 불화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다.

봉은불교미술원(www.bongen.pe.kr)
만다라 불교미술원(mahndara.inticity.com)
범주스님의 선목화 홈페이지(www.dalmaart.com)
불교미술전시관(buddha.co.kr)
혜안스님 불교서각전(www.heaan.co.kr)
불교이미지아트(tunhwang.hihome.com)

■음악

음악사이트는 전통적인 불교음악인 범패와 영산재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각종 의식에 쓰이는 음악이나 찬불가, 명상음악을 곁들여 소개하기도 한다. 이들 사이트는 당연히 리얼오디오나 리얼플레이어로 직접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설명 역시 빠뜨리지 않는다.

만트라(aum.co.kr)
불교음악 범패(www.pompae.or.kr)
한국의 전통 불교음악(myhome.netsgo.com/budd)
홍순지의 불교 음악과 명상 음악
(user.chollian.net/~studiog)
도리도리 공식 홈페이지(www.sarm.or.kr)
좋은벗 풍경소리(www.bdsori.co.kr)

■고승법문

한국불교사에 큰 자취를 남긴 고승들의 법문은 다시 들어도 그 의미가 새롭다. 큰스님들의 생애와 사상, 법문, 어록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다. 특히 성철넷은 다양한 법문을 스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다.

금하당 광덕 큰스님(www.bulkwang.org/snim/snim.html)
동곡당 일타 큰스님(www.ilta.or.kr)
성철넷(www.songchol.org)
원효대사(wonhyo.buddhism.org)
원효학 연구원(www.wonhyo.org)
서산대사(seosan.buddhism.org)

■인터넷 방송

새로운 세대인 네티즌들이 불교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게 하는데 인터넷 방송을 빼놓을 수 없다. 스님들의 지난 법문과 법회 중계, 합창단의 찬불가, 문화 공연 등을 인터넷으로 즐길 수 있다.

한마음불교방송국(www.hbtv.org)
불교인터넷텔레비전(www.buddhatv.com)
애티앤-선재 청소년인터넷 방송국(www.aeten.net)

■선(禪)

선 관련 사이트들은 참선 및 수행에 관한 글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참선 수행의 방법, 수행의 단계, 선사들의 법문, 선시 등을 제공한다.

선객(sungag.buddhism.org)
선시의 세계(user.chollian.net/~nobui)
달마게이트(dhamool.buddhism.org)
우곡선원(www.wookok.org)
정혜선방(myhome.netsgo.com/budman/default.htm)
능인선원(www.gotobuddha.com)

"부처는 과대망상증 환자" 훼불 일쑤

인터넷에 소개된 불교왜곡 사례

각양각색의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까닭에 정보의 정확성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터넷. 한번 잘못된 자료가 올라가면 그 자료가 검증없이 그대로 유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검색엔진에서의 대표적인 오류는 바로 분류오류. 교육전문검색엔진 e-school(http://e-school.co.kr)에 불교 관련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원불교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원불교도 불교의 한 종파나 계파로 이해해 버린다. 미륵불로 검색을 할 경우 검색되는 대순진리회나 증산도도 불교의 한 종류로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용어상의 오류다. 박근모씨의 개인홈페이지(http://buddha.hihome.com)에는 초전법륜을 초전법률로 표기하고 있다. 관리자 입장에서야 오타이지만 불교를 모르거나 초심자들은 초전법률이라고 기억하게 된다.

종교간의 대화를 표방하고 나선 몇몇 사이트에서는 종교 간의 교리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각양각색의 비방이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http://www.believers.co.kr)에는 "엉터리 불교와 불경을 비판한다"는 주제의 토론방이 개설되어 있다. 가톨릭 신자가 개설한 이곳 토론방의 주제설명에는 불교의 기원을 "부처는 세상의 깨달음을 위해 왕궁을 나왔다. 그리고 수행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신분열증과 과대망상증에 걸렸는데 이 증세는 기존의 지식은 그래도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각, 환청, 환상이 보이는 것이었다. 환상에 의해서 당시에 떠돌던 이야기의 귀신들이 눈에 보였고 환각에 의해서도를 깨닫는 것처럼 느껴졌다. 부처는 그래도 마음이 착해서 선을 바탕으로 왕궁에서 배운 학문에 자신의 환각을 더해서 사상을 완성하였다"며 부처의 깨달음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성철스님의 열반게를 놓고도 성철스님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회의하면서 천추의 한을 안고 떠났다는 등의 훼불성 토론방이 개설, 불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례가 다분하다.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에 개설된 토론방.

증산도 · 대순진리회도 "불교"

성철스님 열반게 멋대로 해석

문화관광부 사이트에 문화상징Best10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들어있다. 관련 사이트를 클릭해보면 불국사는 불국사 홈으로 연결되지만 석굴암은 관련 사이트 연결조차 되지 않는다. 오류도 오류지만 타종교와 비교할 때 불교관련 사이트들의 숫자는 너무도 부족하다.

Religion포탈(http://www.religion.co.kr)이라는 종교전문검색엔진에 들어가 보자. 기독교 홈페이지는 1394개, 천주교는 174개, 불교는 150개로 기독교의 10분의 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즘 한창 인기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는 그 숫자가 현저히 벌어진다. 회원수도 개신교와 불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음넷에 개설된 1만4천670개의 종교카페 가운데 1만1천795개의 기독교 카페는 불교의 405개와 비교를 거부한다. 회원수 상위 10위 권내의 카페도 기독교가 8개, 천주교 1개, 불교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엔진 엠파스에서 검색되는 불교관련 홈페이지는 모두 244개. 이에 비해 개신교는 3087개이다. 천주교도 334개로 불교사이트보다 앞선다. 인터넷 방송의 숫자에서도 기독교 29개, 불교 4개로 비교우위는 변하지 않는다.

숫자의 열세를 극복하는 길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 뿐이다. 불교관련 홈페이지들이 사이버 공해라는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상천하유아독존

(부분 속 전체, 구함 속 충분)

머리 가슴 지나 배 속에 담아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진정한 成人

우담바라
(하나한)

안은 엷어지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움 넘고
걸려들지 않으나 함께 못 하는 바라봄 넘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 여는 이뤄꼬 넘고
⋮
얼굴 모두 아닌 숨굴 국한하는 호흡 넘고
핵심인 의식보다 동작 중시하는 기공 넘고
얼의 밥 아닌 마음 약 자처하는 명상 넘고
근원합일 제외 인과처방 자족하는 심리치료 넘고
모든 인간 여의주 보유 간과하는 의식개발 넘고
결국 자신과의 대화일 수 밖에 없는 채널링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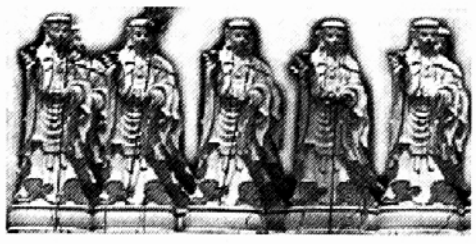
【과 정】
※1루 : 마음고치 안팎 자유 왕래
※2루 : 지푸라기 속 무한성 확보
※3루 : 모두가 나인 세계에 진입
※홈 : 항상 가득 최선의 삶 안무

【특 징】
※애고 비움 죽임 아닌 확장
※기존 핵심 용해 자원 혁신
※심각 아닌 진진 놀이 진행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체험 소감】
"엄마 자궁 몸나 아닌 내 자궁 얼나로 부활 영생 참 경지"-신부
"먹고 싸고 보고 듣고 일함 자체를 道로 노자 소원성취"-김영철(교수)
"아픔은 곧 我품, 참나로의 근원적 예방 치유 길"-이정숙(의사)
"구름 사이 하늘 아닌 구름 여는 법, 애고 가득 채워 해결"-스님
"똥오줌 분별하듯 마음 얼 의식 분별하면 이토록 명쾌한데"-김대성(학생)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월 셋째 월15:00~토 15:00(참가비:55만원)농협 111-12-336006 윤 석태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한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오가피 알아봤더니 金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 화 : 0333)682-5033, 682-4965
FAX :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동안거 선방 안내

보덕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안거선방
안내를 드리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 스님들께서는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정진 하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주 소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824-1
문의처 : 02) 914 - 4235

보덕선원장 오본 합장